

■ 실속 재테크

수익률 고공행진 원자재 펀드

# 목돈이라면 중·장기 투자 해볼만

국제 금값 연일 상승 등 원자재값 급등세  
단기수익 노리고 따라잡기식 투자땀 위험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은 달러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원자재펀드의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덕분에 올 하반기 들어 계속되고 있는 펀드판매 추세 속에서도 원자재펀드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원자재펀드에 가입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수요대비 공급 부족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급등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원자재펀드 얼마나 올랐나=펀드의 기초 자산인 원자재의 가격 상승세가 무섭다. 금값은 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온스(30.1g)당 1101.40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도 이날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배럴당 79.43달러로 8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펀드 수익률도 급등해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기초소재섹터 주식형펀드 1개월 평균 수익률이 9.68%를 기록했다. 특히 원자재펀드의 지난 1년 동안 수익률도 40~50%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대형 판매중인 원자재펀드 가운데 금을 기초로 한 '기은SG골드마이닝'은 1년 사이 82.4%나 급등했고, 32억원이 팔린 '우리글로벌 천연자원'도 1년 수익률이 24.6%에 달하고 있다.

◇지금 가입해도 될까=전문가들은 원자재의 고갈 및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공급은 부족해데 반해 중국

■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 원자재펀드 <설정액 100억원 이상, 11월 6일 기준>

펀드명	수익률(%)
삼성 WTI 원유특별자산 1(WTI 원유-파생)A	13.46
KB MKF 원자재특별자산(상품-파생)A	12.32
미래에셋 맵스리저스 Commodity 인덱스특별자산(일반상품-파생) 종류B	11.57
미래에셋 맵스리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일반상품-파생) 종류B	11.30
블랙록월드 광업주 재(주식) H, A	10.83
해외주식형펀드 평균	5.76

(자료: 제로인)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펀드의 수익률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에 대한 전망 때문으로 실제 경기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다시 경기가 나빠지는 '더블딥'이 온다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최근 원자재펀드의 수익률 변동 추이를 보면 위험성이 높은 이머징 국가의 주식 못지않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따라

가기' 식의 투자를 할 경우 상투를 잡을 수 있는만큼 분산투자와 인플레이션 회피라는 원자재펀드의 투자원칙에 충실한 장기 분산투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자신의 금융자산 중에 10% 내외만 투자하되 투자 시점을 나누어 최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좋다는 얘기다.

광주은행 PB센터 상무점 정순자 부부장은 "목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원자재지수에 연동되고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펀드에 투자하고, 적립식은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정해 정기·정액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銀 '소호명가' 직거래 장터  
광주은행은 10일 본점 1층 로비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소호명가 직거래장터'를 열고 한국제다·청매실농원·추성고을 등 소호명가로 지정된 16개 지역 업체가 출품한 100여종의 상품을 12일까지 시중보다 10~30% 싸게 판매한다. 수익금의 일정액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된다. (광주은행 제공)

## 요일제 참여 운전자 보험료 8.7% 할인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소폭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손·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 범위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로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금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원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

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

계약 기간에 요일제 3회 위반까지 는 약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약 8.7% 할인 수 있다.

료의 8.7% 수준에서 특별 할증보험 료가 부과된다. 약정일에 사고가 나

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 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허위가능점검과 주행거리 불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해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사 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주행거리를 전

산 입력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필요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 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 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 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 칩을 개정해 내년 2월 7일 시행할 예 정이다.

정이다.

/연합뉴스

중고차 주행거리·성능 조작땀 징역형

## “학원·숙박업 카드 수수료 3% 너무해”

지역 소상공인 인하 요구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60% 이상을 신용 카드로 거둬들이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슈퍼마켓·음식점·주유소 등 지역 소상공업체 105곳을 대상으로 신

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매출에서 신용 카드 매출이 56.8%를 차지했다.

체크카드 비용까지 포함하면 5.4%로, 카드 매출만 62.2%에 달한다. 반면, 현금금은 35.0%에 그쳤다.

업종별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1.5~3.5%에 이른다.

업종별 평균수수료는 숙박업이 3.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3.23%), 의류판매(3.2%), 가구(3.2%), 자동차부품 및 정비(3.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석유는 2.0%, 주유소는 1.5%로 다른 업종과 차이가 컸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대부분 업종에서 2.0~2.5%의 수수료를 냈다.

이들 업체들은 매달 5천원~1만5천원을 카드단말기 유지관리 명목으로 부담했고 카드 단말기 통신회(건당 40원)도 업체의 80%가 매월 10만~2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는 부담비용이 20만~5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수수료 적정 수준은 80%가 '1.5~2.0%'라고 답했다. 경기 침체리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내려 달라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속칭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속칭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속칭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